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이유

-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이름의 기재문자수 제한을 받지 않는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을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으로 하고,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분을 삭제함[안 4. 나. (1)]
-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에 대한 일정한 경우에도 이름의 기재문자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안 4. 나. (2)]

3.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일부개정예규안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일부개정예규안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1)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에 대하여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 (2)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에 대하여 모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 (3)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나 외국인이 귀화, 국적취득 또는 국적회복을 함에 있어 외국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이름의 기재문자수에 관한 적용례) 4. 나. (1) 및 (2)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전에 외국인 부 또는 외국인 모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성을 제외한 이름자가 5자를 초과한 문자를 말한다)으로 혼인중의 자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하되, 추후보완신고를 받아 그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4. 이름의 기재문자수의 제한</p> <p>가. (생 략)</p> <p>나. <u>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에 대하여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을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와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나 외국인이 귀화, 국적취득 또는 국적회복을 함에 있어 외국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u></p>	<p>4. 이름의 기재문자수의 제한</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u>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u></p> <p>(1) <u>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에 대하여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u></p> <p>(2) <u>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에 대하여 모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u></p> <p>(3) <u>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나 외국인이 귀화, 국적취득 또는 국적회복을 함에 있어 외국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u></p>

<의안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1771